

이미경 CJ 부회장 '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선정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 올려

CJ그룹은 이미경 부회장이 세계은행 산하 여성기업가기금(We-Fi)의 지지 확보 활동을 펼 '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챔피언(그룹 참여 멤버 지칭) 16명 중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여성기업가기금 We-Fi는 개도국 여성기업가들에게 금융·기술·네트워크 기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금으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이방카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관이 제안,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여성 분야 주요 성과로 채택되면서 기금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통해 공식 출범했다.

We-Fi '리더십 그룹' 챔피언은 기금 사무국이 여성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운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국가들로부터 여성기업인

들에 귀감이 될 만한 글로벌 여성 리더를 추천받아 선정됐다.

이미경 부회장을 비롯해 크리스틴 라카르트 IMF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리마 빈트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등 정부 및 국제기구 인사, 미국의 앤 피누케인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회장, 일본의 카오리 사사키 ewoman 회장 겸 CEO, 호주 게일 켈리 前 웨스트팩그룹 CEO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간 분야 리더 등 총 1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글로벌 한류 확산 역할 및 이미경 부회장의 글로벌 경제·문화계 네트워크 등 영향력을 고려해 추천된 것으로 안다"며 "각국의 여성기업인들이 더욱 활발히 경제활동을 펴고 이로써 세계경제가 더욱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홍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SK이노베이션 일상 속 혁신 아이디어 공모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월 론칭한 기업PR 캠페인 '세계가 이노베이션 한다'를 주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이노베이션이 확산될 수 있는 '일상 속 이노베이션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을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노베이션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한 줄 아이디어라는 쉬운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벤트 자체도 혁신이 되도록 기획했다.

일상 생활에서 이노베이션(혁신)을 실천한 사례나 세상을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심사한다.

공모작들의 참신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에게는 기업PR 캠페인의 주 소재였던 구글어스 지도가 표현된 자체 제작 기념품인 고급 우산을 증정하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SK이노베이션 SNS 콘텐츠로 제작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우리는 청원경찰 등 숨은 공로자에 감사패 전달

우리는행은 지난달 30일 손태승 우리는행장이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은행의 숨은 공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소통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손 행장은 은행의 청원경찰, 환경미화직원, 시설관리 직원, 우편집중실 직원 등 160여 명을 초청해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오찬을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를 찾아주고 현금인출 방법을 안내한 청원 경찰의 미담

사례를 소개하고, 그 주인공과 각 업무별 대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숨은 공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와 온수매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는행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의미 있는 행사이며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원들이 알고 있고 항상 감사드린다"며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올 투게더 우리(All Together Woori)'



손태승 우리는행장(왼쪽 세번째)이 청원경찰, 시설관리직원 등 숨은 공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행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NH농협은행 올원뱅크 '음성뱅킹' 서비스

NH농협은행은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성뱅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음성으로 올원뱅크 내 원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간편송금'과 '자주쓰는 송금'에서 각각 수취인 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이름만 말하면 편리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원커뮤니티'를 신설해 올원뱅크 내에 사용자리뷰 및 활용팁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개인 커뮤니티로 공유할 수 있도록 'SNS 공유하기' 기능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각종 모임개설과 회비 내역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생활 속 모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김민조의 운세

5월 2일 (음 3월 17일)

민조 역학 학당(02-713-8207 www.kimminjo.co.kr)

- 48년생** 물이 아프거나 아는 사람과 다투는 일이 있다. 60년생 생각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거나 대접 받을 일이 있다. 72년생 기쁨에 들떠서 말실수를 하여 낭패를 본다. 84년생 친구와 다투거나 삼각 관계가 생긴다.
- 49년생** 별일도 아닌데 공연히 마음이 상한다. 61년생 부인과 다투거나 들어올 돈이 안들어와서 곤란해진다. 73년생 나쁜 일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85년생 지인이 돈을 빌려다라고 하거나 약속된 돈이 안들어온다.
- 50년생** 돈이 들어오거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62년생 기쁜 일이 있으나 과음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74년생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 86년생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된다.
- 51년생** 우연히 만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63년생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있으니 조심해라. 75년생 돈 쓸 일이 있거나 주변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있다. 87년생 문서로 인해 시끄럽지만 해결된다.
- 52년생** 식욕이 생기고 과식할 일이 있다. 64년생 주변 사람과 경쟁해야 할 일이 있다. 76년생 신경 써야 할 일이 있거나 과식을 해서 소화가 잘 안된다. 88년생 다치는 수가 있으니 매사 조심해라.
- 53년생** 말로 상처를 받거나 감기 조심해야 한다. 65년생 주변에 친한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77년생 생각하지 않게 계약이 성사되거나 좋은 소식을 듣는다. 89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좋은 정보를 듣게된다.

- 54년생** 친구들과 어울려서 회포를 풀일이 있거나 내기를 할 일이 있다. 66년생 열 받는 일이 있거나 몸살로 고생한다. 78년생 다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90년생 여자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다툼에 일을 저질른다.
- 55년생** 사이가 나뉘었던 사람과 화해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67년생 주변 사람에 의해 돈이 되는 정보를 듣게 된다. 79년생 부부사이가 좋아지고 화합을 하게 된다. 91년생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 56년생** 마음이 무겁고 힘드네 외출할 일이 생긴다. 68년생 감투를 쓰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 80년생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네 다 날 일도 생긴다. 92년생 사람들과 어울려서 회포를 풀 일이 있다.
- 57년생**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69년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자랑할 일이 생긴다. 81년생 돈이 들어오거나 여자를 만날 일이 있다. 93년생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된다.
- 58년생**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과 화합하게 된다. 70년생 지체되었던 돈이 들어오거나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된다. 82년생 기쁜 일이 있는 가운데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다. 94년생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 59년생** 자식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소식을 듣게 된다. 71년생 부부 사이가 좋아지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83년생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있고 먹을 복이 있다. 95년생 지인과 말다툼이 있으나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된다.

김상회의 4季

기도와 선(禪)

우리가 종교에 귀의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인생살이에 워낙 고난이 많다보니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 보겠다는 생각이 일차적일 것이다. 조금 더 인식의 지평을 넓힌 사람이라면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마음자리 생각 그리고 직관과 예지로서 삶의 실체를 규명하고픈 형이상학적인 욕구 때문이리라. 한국은 대승불교 안에서도 조사선(祖師禪)의 전통이 훌륭하다. 그러나 출가승이 아닌 다음에 선(禪)수행을 제대로 하기란 쉽지가 않다. 일반 재가불자라 할지라도 종교심이나 신앙심에는 단계가 있는 법초발심을 낸 분들께 필자가 권유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고 싶다. 종교심이 없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살이를 해나가는데 있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선 마음을 가다듬고 반듯이 앉아 두 눈을 감아본다. 완전히는 감지 않은 채 정면 아래쪽을 응시해도 좋다. 가부좌가 편치 않다면 반가부좌를 하고 어깨를 편안히 늘어뜨려 본다. 허리만큼은 의식적으로라도 반듯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은 힘이 드는 것 같으나 조금만 반복해보면 이 자세가 가장 지구력이 생기게 해 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면 눈을 감으면 웬 잡생각이 그리도 많이 떠오르는지 불편해지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정도다. 미리 낙담하지 마시라. 이것 또한 과정인 것이다. 초심자가 처음부터 가부좌를 하면서 참선이라 이름붙이기 뭐하다면 잠시 명상이라 이름 붙여도 좋다. 그러나 규칙은 있어야 한다. 하루에 5분씩 삼일이나 일주일일 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조용한 자신과의 대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루를 보내기가 찝찝해진다. 맨 처음부터 무념무상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하루의 일과를 눈을 감고 곰곰이 돌이켜 본다든지 하는 맘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음속에 각오나 발원을 가져본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다면 항상 가피만 받을 일이 아니라 스스로도 이겨나갈 힘을 키우고 혹여 내가 받은 가피를 인연 닿는 그 누군가에게도 되돌려 줄 수 있기를 더불어 발원하는 것이 바른 신심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다. 불가에서는 이를 '회향(回向)'이라 말하는데, 이 회향이 없이 그저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암체 심보이자 공짜를 밝히는 일이다.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주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자 축복이란 것을 지혜가 열린 사람은 알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4		8			
6		4				5		9
	5			8			9	
8			9	6	5			2
	9		1		7		8	
9				5				6
	2						7	
		8	7		1	9		

			9		5			
			4		7		6	
	7							1
	8			5				4
		3	4		6	9		
	1				9			7
	4			8				9
		8	7			9	1	
1	2			6			8	5

스도쿠 정답								
4	5	6	1	2	3	8	9	7
8	9	1	6	2	3	4	5	7
9	2	1	8	5	9	6	7	3
5	8	9	2	1	3	7	6	4
2	7	3	5	9	6	8	1	4
1	6	8	7	8	2	9	5	1
6	1	5	2	3	4	7	8	9
3	9	2	8	1	7	6	5	4
8	4	7	9	6	5	1	2	3

문제 제공= 보누스